

보도 일시	2023. 3. 14.(화) 09:00	배포 일시	2023. 3. 14.(화)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권수진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임종우 (044-203-2867)

문체부, 관광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공략 돕는다

- 5월 '아부다비 투자설명회 개최' 협력,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공략을 돕는다. 문체부는 3월 13일(월) 관광공사, 코트라와 업무 협의를 진행해, 중동시장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관광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직원 모두가 K-컬처, K-관광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동 지역에 우리 문화·관광을 과감하고 밀도 있게 선보여 한류 확산을 촉진하고, K-컬처의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연관산업 수출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2023-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해 우리 관광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취적으로 진출하고 관광 수출을 이끄는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월 정상외교 성과 이어받아 중동의 K-관광 붐 조성 협력

이날 회의에서 3개 기관은 ▲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5. 3.) 협력, ▲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가 관광 분야에서도 차질없이 이행되어 중동에서 K-관광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한 준비로 문체부는 지난 1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매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육성하고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체 개발한 숙박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숙박업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H2O호스피탈리티’와 ‘호텔에서 한달살기’ 상품을 출시한 ‘(주)트래블메이커스’ 등이 있다. ‘H2O호스피탈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지난 1월 30일(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심으로 다룬 아부다비는 2019년 기준 연간 여행객 1,100만 명이 방문한 세계적 도시로, 향후 우리 관광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

해외 조직을 갖춘 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와 코트라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과 현지 벤처투자사, 부동산기업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를 심도 있게 접촉해, 5월에 예정된 아부다비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투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중동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유망 관광벤처 기업 10개사를 현지 유력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